



금속노조 강원지부 건설 첫발 내딛다

강원지역지회 준비위 발족·삼표지회 현판식 ... “공장 안 처음 금속 깃발 휘날리는 날”

금속노조가 강원지부 건설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금속노조는 9월 22일 오후 강원 삼척시 민주노총 삼척사무소에서 금속노조 강원지역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연 뒤, 인근 삼표시멘트 공장으로 이동해 금속노조 삼표지회 현판식을 열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발족식에서 “노조가 강원지역지회 준비위원회 발족을 통해 강원 전략조직화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강원지부 건설까지 노조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김경래 금속노조 삼표지회장은 “금속노조 가입하니까 조합원이 늘고, 하청노동자들이 꿈틀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힘을 느꼈다”라면서 “강원 남부에 금속노조 깃발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자”라고 당부했다.

용석일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장은 “신일정밀지회는 이제 외롭지 않다”라며 “강원에서 삼표지회 동지들과 금속노조 깃발을 함께 휘날릴 수 있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



각한다. 지역지회를 넘어 강원지부를 건설하는 날까지 열심히 조직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기홍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이날 ‘금속노조 강원지역지회 준비위원회 경과와 발전 전망’을 발표하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여섯 개 지부와 공동조직화 선전사업을 벌였고, 노조가입·노동문제 상담이 늘어 조직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삼표지회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직가입 강원영동노조 삼표지부로서 금속노조 가입을 준비해왔다. 동시에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은 2022년 말부터 강원조직화 토대 구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7월 12기 5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삼표지회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강원 조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노조는 지역지회 설치와 관련한 ‘규약 49조’와 ‘부칙 10조’를 근거로 강원지역지회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제반 준비를 2023년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원지역지회 공동 준비위원장은 용석일 신일정밀지회장과 김경래 삼표지회장이 맡았다. 함석용 신일

정밀지회 사무장과 김진영 삼표지회 사무장, 박기홍 전략조직국장은 공동집행위원으로 활동한다. 준비위원회는 ‘간부 역량 강화’와 ‘강원 지역 금속노조 토대 형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강원지부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강원지역지회 준비위 발족식을 마친 노동자들은 삼표지회 현판식을 위해 삼표시멘트 현장으로 향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안에 처음 금속노조 깃발을 휘날리는 날”이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금속노조 함께 찾자”

‘2회 금속노조 이주노동자의 날’ 열어 ... “이주노동자 차별·불평등 용인 못 해”

금속노조가 9월 24일 경주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금속노조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노조 경남지부, 경주지부, 대구지부, 부산양산지부 등 13개 국적,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했다.

각지에서 모인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각 지회 소개를 마친 뒤, 우디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운동 이해’ 라는 주제 강연을 들었다.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돼 만든 이주노동운동 역사에 대한 이해와 노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었다.

노조는 이어 ‘Free Job Change’ 노래·율동 배우기, 팔씨름, 제기차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높였다.

금속노조는 행사를 실시간 통·번역하고, ‘이주노동자의 날’ 교육자료집을 열세 개 언어로 통·번역해 나눠줘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이날 행사에서 노조를 대표한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들 통해 “국내 등록외국인 120만 명 중 42만 명이 미등록 상태다” 라면서 “이주노동자들은 국적,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과 차별이 난무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라고 지적했다.

손덕헌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도 용



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신념이자 19만 조합원의 의지일 것이다” 라며 “모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격려사에서 “금속노조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다” 라면서 “현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대응을 포기하지 말고 노조를 적극 이용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정진홍 지부장은 “금속노조 이주

노동자 조합원을 넘어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금속노조가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이춘기 경주 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센터를 운영한 지 13년이다” 라며 “사용자 착취와 폭력에 시달리다 도망쳐 나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찾아온다” 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춘기 소장은 “이주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잘 살 수 있다” 라고 당부했다.